

세계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2020년 중국은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미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상정하기도 한다. 중국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마저도 항상 조기 달성해 왔다. 더욱이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쇠퇴로 인해 중국의 상대적 부상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전망하는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하고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간의 논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중국 부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다. 중국이 지난 30여년과 같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중국이 언제 일본과 미국을 앞서며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분석이 집중되어 왔다. 다른 하나는 국제정치학적 관심이다. 중국의 부상은 국제체제의 세력관계에 일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국제체제에 어떠한 충격과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부상이라는 문제를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접근, 검토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부상을 전망함에 있어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 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해왔다. 향후 정치, 사회영역은 부상하는 중국의 성격을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국은 부상 일정의 최종시점으로 건국 100년이 되는 2050년을, 그리고 중간 단계로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을 설정하고 있다. 이 책은 부상 일정 상의 중간 단계인 2020년을 선택하여 중국 부상 전망과 더불어 그 진행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셋째, 기존의 중국 부상 논의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자체의 전략과 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이제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미래 강대국상의 실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넷째, 중국의 미래를 전망하기 앞서 지난 30년의 개혁개방 과정을 돌아보고 성과와 과제를 정리했다. 개혁개방 과정에 누적된 문제들은 바로 향후 중국의 강대국화 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전략의 적실성은 물론이고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각 영역별로 개혁개방의 성과와 과

제를 분석하고, 중국의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약 10년 후인 2020년경 중국의 변화된 국내상황, 국제적 위상,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이정남 교수는 2020년까지 중국은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공산당이 주도하는 ‘탄력적 권위주의체제’ 수립에 머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른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모색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부분적인 정치개혁의 결과, 정치자유화의 공간이 확대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공산당과 시민사회 사이에 민주화 논의를 둘러싼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영역에서도 김영진 교수는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는 중산층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민주화 세력으로 대두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의 공산당에 대한 이반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러한 공산당의 위기가 바로 민주화로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공산당 지배체제는 ‘탄력적 권위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환우 박사는 2020년까지 공산당의 집권능력이 유지되고 정치안정이 확보된다면, 거대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기술 수준도 꾸준히 제고되어 중국의 ‘독자적 경제 강대국화’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20년까지는 세계적 범위에서 경제적 헤게모니 지위에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제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통상규범, 위안화 국제화, 통상협력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독자적 경제 강대국화’는

고도의 상호의존 경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 분야의 경우 하도형 교수는 중국은 2020년 무렵에도 종합국력의 발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협력 발전’ 원칙 하에 국지적 지역적 분쟁 대비가 안보정책의 기초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긴장과 충돌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긴장과 충돌이 주권이나 영토 보전과 연관된다면 무력수단 사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석희 교수는 중국이 외교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미 외교에서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상호주의적 헤징(reciprocal hedging)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국의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또한 규범제정(rule-making)과정에 참여하면서 초일류 강대국으로서의 열망을 추구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패권 전쟁에 의한 세력전이를 도모하기보다는 국제적 규범 및 규칙, 그리고 가치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러한 규범, 규칙, 가치를 자국의 상황에 유리하게 만들어감으로써 세력전이를 비폭력적 합법적 형태로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외교력의 증진 그리고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 외교전략의 변화는 국제질서(체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박병광 박사는 중국이 2020년경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주도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

국은 2020년경 동아시아에서 오늘날 미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독점적 패권의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동아시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내질서의 새로운 '규칙제정자' (rule maker)로서 등장할 것이며,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공동 관리자' (joint dominator)로서 지역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래의 중국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부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역내에서 자기 의지를 배타적으로 투영하고자 시도한다면 오히려 주변국들과의 사이에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부상을 위해서는 국내체제 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견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중국은 이러한 과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중국 부상의 지역 기반인 동아시아에서 주도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대국의 정형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신흥대국' (新興大國) 중국의 성격은 향후 10년 중국 부상의 진행 경로와 과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향후 10년의 부상 과정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10년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한국이 부상하는 중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는가는 향후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강대국간 세력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연구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장기 비전과 전략, 그에 따른 중국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응과 전략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연구원의 중국패널이 꾸려진 이후 첫 연구 성과이다. 중국 연구자들이 함께 공부하자는 순진한 의기투합으로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붕 아래에서 연구모임을 시작한지 2년여만의 결과이다. 그간 새로운 시도에 익숙치 않아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럼에도 꾸준히 발표와 토론을 지속하면서 다듬어낸 것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애착이 간다. 책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을 함께 인내해준 필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중국연구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아시아연구원 이숙종 원장 이하 연구원의 여러 선생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특히 중국패널의 성립에서 책의 출판까지 굳은 일 마다 않고 묵묵히 뒷받침해준 서상민 박사에게도 이 기회를 빌려 감사드린다.

2011년 3월
이동률